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4, 105-123, August 2013
DOI : dx.org/10.5723/KJCS.2013.34.4.105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유아 -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영향 변인 : 자녀의 연령, 자녀수 및 어머니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

The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 A Child's Age, the Numbers of Children, and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정계숙(Kaisook Chung)[1)]
박수홍(Suhong Park)[2)]
유미숙(Meesook Yoo)[3)]
최은실(Eunsil Choi)[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child's demographic variables and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on their happiness for moth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916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a child's age and the numbers of children influenced maternal happiness when mothers' 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addition, mothers who exhibited high degree of need in term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regarding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were more likely to be happy than mothers who exhibited low degree of needs. Finally, the expectations regarding growth, which refers to the pursuit of self-accomplishment and meaning,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68).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4)]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Eunsil Choi,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echoi0508@gmail.com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maternal happines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Key Words : 어머니 행복감(maternal happiness), 어머니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사회인구학적 변인(demographic variables).

Ⅰ. 서 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은 합의된 정의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Kwon, 2011), 모든 인간의 삶에서 행복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덜 행복한 것은 행복은 여러 예측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 요인의 일반적 범주는 크게 생활 여건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기질과 성향 및 의도적 행동 요인으로 나누어진다(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그러나 한 사람의 행복을 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행복에 관한 가치관이며, 그 중에서도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여러 조건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가지느냐, 즉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느냐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욕구의 미충족은 고통과 불편감을 유발하고 욕구의 만족은 기쁨과 안녕감을 가져오므로 욕구는 가치있는 상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인간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촉발시키는 내적 조건(Chung, 1968)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모든 인간에게 가치있는 상태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여러 행복 조건에 대한 욕구와 그 욕구의 정도는 현재의 행복감 판단에 있어서 개인차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행복의 조건일수록 그것을 많이 가질 때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행복을 욕구의 충족 상태라고 볼 때(Alderfer, 1972; Maslow, 1954; Veehoven, 1984), 행복의 조건 또한 인간 다양한 욕구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다. Maslow(1954)의 위계적 욕구 모델을 비판한 Alderfer(1972)의 E · R · G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 조건은 크게 생존(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인 '생존 욕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성별, 교육, 소득, 환경 등과 같이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중적인 관심이 컸던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긍정심리학의 초반부터 많이 이루어져서 현재 많은 연구물들이 축적되었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Kim, Kim, Han, Lim, 2003; Lee, Lee, Yoo, & Jo, 1991; Wilson, 1967).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외적인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다(Chung & Choi, 2012; 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Diener *et al.,* 2010; Koo & Suh, 2011; Park & Yoon, 2012). 즉, 외적인 변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인 '관계 욕구'는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로서, 특히 부모, 형제, 자식, 동료 등 중요한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이다. 행복에 있어 관계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Vailliant(2002)가 72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입증하기도 하였지만, 집단주의적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중요성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성인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이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관계적인 요인이었으며(Koo & Kim, 2006), 어머니들에게 있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진 것 또한 자녀와의 관계(Chung *et al.,* 2012)였고, 어머니 행복의 인지적인 측면인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또한 사회적 지지, 즉 관계적인 요인이었다(Chung & Choi, 2012). 세 번째 요인인 '성장 욕구'는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의미하는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기저욕구로 자아성취·실현,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인간의 행복이 동물과 다른 점은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미덕 있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Aristotale(200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행복에 있어 성장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행복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행복 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Kim & Han, 2006; Rothwell & Cohen, 2003). 한국과 영국의 일반 성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행복공식에서 성장 요인은 두 나라 사람들 모두의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한국 성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성장 요인은 생존이나 관계의 두 배의 중요성을 보여, 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에 대한 자아존중감, 낙관성, 자율성 등 심리내적 요인의 중요성 또한 인간의 내적 요인, 특히 성장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Koo & Suh, 2011).

특히, Alderfer(1972)는 이러한 세 가지 욕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충족됨에 따라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욕구 자체가 우리 삶에 주요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Sheldon과 Elliot(1999) 또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비중이 달라지며,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존, 관계, 성장 조건에 대한 가치관, 필요정도 및 기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와 같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발전과 같은 내적인 조건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와 많은 긍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Ryan *et al.,* 1999; Sheldon & Kasser, 1995). 또한 행복 추구 경향의 세 가지 경향인 즐거움 추구 경향, 의미 추구 경향, 몰입 추구 경향 중 내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 추구 경향만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Hwang & Kim, 2009)도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외적·상황적인 것을 중요시하기보다 개인의 동기와 의지로써 바꿀 수 있는 내적 가치나 활동을 중요시함으로써 행복의 40%정도를 넓힐 수 있다는 Lyubomirsky 등(2005)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내적 성장 욕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욕구의 미충족이 필수적으로 만족을 얻고자하는 시도를 하게 만들지는 않으며 그러

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적절한 행동을 하면 욕구 만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Harre & Lamb, 1983),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 및 기대 자체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Kim, 2006, 2007). Kim(2006, 2007)은 행복감이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적 연구 결과, 삶의 기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우울, 불안 등은 낮았고, 긍정 정서, 자존감 및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07), 삶의 기대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Suh & Oh, 2009). 이를 종합해 보면, 행복 조건에 대한 높은 가치관이나 기대,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등은 그 자체로서 삶을 그러한 방향으로 지향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복의 조건 중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높여 더욱 행복한 삶을 지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선행연구들의 대상은 주로 청소년, 성인,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졌으나(Diener *et al.,* 2010; Hwang & Kim; 2009; Kim & Han, 2006; Koo & Suh, 2011; Park & Kim, 2009; Wilson, 1967), 최근 자녀의 행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Kim & Han, 2006; Kim & Kim, 2008) 어머니 행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어머니의 행복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Chung *et al.,* 2012, Moon *et al.,* 2009, Kim & Kim, 2006, Park & Yoon, 2012).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일반 성인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어머니의 내·외적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어머니라는 대상의 행복은 가족환경적인 특성의 중요성이 주목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오래 전부터 그 특성의 영향이 지적되어 왔는데(Kammann, Farry, & Herbison. 1984; White, Booth, & Edward, 1986), 특히, 어머니의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자녀의 연령, 자녀수와 같은 자녀 관련 변인은 그 발달적, 사회적 의미로 인해 연구의 필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Chung *et al.,* 2012; Kim *et al.,* 2003; Kim & Park, 2001).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은 부모의 양육 특성과 함께 부모 효율성에 대한 인식(Luster & Okagaki, 1996)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로서의 양육 효율성은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어 종국적으로는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도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 과업의 차이로 인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그 경중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 지향적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부모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조기 특기교육 제공으로 겪는 부담(Ahn, 2003; Kim & Ahn, 2007)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부모의 정서적 경험도 연령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IMF시대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욱 느끼며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rk, 2001). 그러나 이 연구는 어머니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며, 또한 자녀의 연령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 연령을 통제하지 않아 자녀의 연령 그 자체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자녀의 수 또한 직접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과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수는 가족의 크기(family size)에 영향을 주는데, 가족이 커지면 부모는 더 독재적이 되고 처벌 및 거부와 긍정적 상관을 가지며 사랑과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가지게 된다는(Furman & Lanthier, 2012) 사실은 자녀수는 부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 또는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많은 자녀수는 곧 여러 연령의 자녀를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연령이 다른 경우 형제 순위를 막론하고 다르게 대하므로(Furman & Lanthier, 2012) 구조와 보살핌을 제공하는(Bigner, 2008) 부모역할은 자연히 그 내용과 범위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녀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야기된 저출산 지향이라는 사회적 문제(Lee, 2005; Woo, Kim, Lee, & Kim, 2009)는 이러한 관련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의 연령, 자녀수와 같은 변인은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인 비통제적인 특성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생존, 관계, 성장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자녀 변인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임이 밝혀지면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Chung *et al.,* 2012; Kim & Han, 2008; Moon *et al.,* 2009; Park & Yoon, 2012) 어머니의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이를 통제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기초 자료와 부모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연령,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 -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은 행복 조건별(생존, 관계, 성장) 필요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 -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행복 조건(생존, 관계, 성장)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표집된 유아 - 청소년 자녀를 둔 916명의 어머니들이었다. 이들은 2개 대도시와 인근 2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

들로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3곳의 유치원과 한 곳의 어린이집에서,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2곳의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1곳의 중학교와 1곳의 고등학교에서 각각 섭외되었다. 자녀의 연령별로 각 400명씩 총 1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932부 중 부실한 응답 사례를 제외한 최종 916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Mother's and child's demographic variables (*N* = 916)

Variables		N	%
Mother's age	Below 35 years old	103	11.2
	35 and 39 years old	309	33.7
	40 and 44 years old	356	38.9
	Above 45 years old	132	14.4
	Nonresponse	16	1.7
Mother's level of education	Middle-school	31	3.4
	High-school	437	47.7
	University	394	43.0
	Graduate school	43	4.7
	Nonresponse	11	1.2
Employment	Employment	583	63.6
	Unemployment	326	35.6
	Nonresponse	7	0.8
Monthly income in household	Below 2,000,000won	125	13.9
	2,010,000～3,000,000won	208	22.7
	3,010,000～4,000,000won	273	29.8
	Above 4,010,000won	291	31.8
	Nonresponse	19	2.1
Child's age	Young Child (1～6 years old)	216	23.6
	Child(7～12 years old)	443	48.4
	Adolescent(13～19 years old)	257	28.1
	Nonresponse	0	0
Child's gender	Male	541	59.1
	Female	374	40.8
	Nonresponse	1	0.1
Child's number	1	144	15.7
	2	612	66.8
	Above 3	159	17.3
	Nonresponse	1	0.1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연령 분포는 만 40세에서 만 44세가 356명(38.9%), 만 35에서 만 39세가 309명(33.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437명(4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583명(63.6%)이었다. 또 응답자들 가운데는 만 7세에서 만 12세의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443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남아의 어머니가 541명(59.1%)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612명(66.8%)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 -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를, 어머니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 - 청소년 자녀 어머니의 행복의 조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유아 -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는 Chung 외(2013)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도구로 '가족관계', '삶의 여유와 자부심', '심신의 건강', '자립과 성장', '영성', '대인관계', '외모', '사회 · 문화 환경'의 8개 영역, 53문항으로 구성된다. 요인분석과 Pearson 상관계수 산출로 구인타당도가 양호함이 입증되었고, Cronbach's α 계수가 .98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문항반응분포와 문항변별도도 양호하여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도구로 밝혀진 바 있다. 각 문항의 내용 요소들에 대해 어머니들 자신이 현재 얼마나 그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지를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53점~318점이다. 연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Maternal happiness scale fo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actors of happiness	Sub factors of happiness	Number of item	Cronbach's α
Relations with family	Relations with children, Relations with parent and relatives, Marital relation, Positive emotions in family	13	.94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Economic strength, Leisure,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	11	.94
Physical and mental health	Health, Positive emotion, Flow, Positive view of life	9	.92
Independency and development	Self-development, Independency	7	.91
Spirituality	Altruism, Religion	4	.83
Interpersonal relations	Relations with friends, Relations with neighbors	3	.93
Appearance	Maintaining standard body weight, Confidence of appearance	3	.83
Sociocultural environment	Educa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Secure environment	3	.88
Total scale		53	.98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의 조건' 설문지는 행복감 척도와 거의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높은 학력을 가지는 것',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과 같은 세 개의 문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응답방법은 어머니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제시된 총 56개 행복요소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6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또한 전체 질문지 지면 구성 시 각 행복 요소의 필요 정도를 먼저 평정한 후 행복 요소를 자신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나아가 응답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척도가 서로 다른 척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굵은 글씨와 밑줄을 그어 진술하였다. 어머니 행복 조건에 대한 총점 범위는 56점~31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하기 위해 특정 요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어머니 행복의 조건은 Alderfer의 E·R·G 이론에 따라 18개 세부 영역을 생존, 관계, 성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행복 조건과 하위 영역인 생존, 관계, 성장 요인에 관한 Cronbach's α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두 척도의 독립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두 척도의 하위변인들의 상관계수는 .16-.49를 보여, 두 척도는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ccording to Alderfer's ERG theory

Conditions of Happiness	The factors of happiness	Number of item	Cronbach's α
Existence	Economic strength(3), Sociocultural environment(3), Health(3), Appearance(3)	12	.93
Relatedness(17)	Relation with children and children grow up well(5), Relations with parent and relatives(3), Marital relations(3), Interpersonal relations(3),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3)	17	.95
Growth(29)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3), Leisure(3), Self-development(3), Independency(3), Religion(3), Altruism(3), Positive view of life(3), Flow(3), Positive emotion(3)	29	.96
Total items		56	.98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happiness and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Conditions of Happiness	Existence	.36**	.40**	.33**	.35**	.39**	.16**	.22**	.26**
	Relatedness	.37**	.44**	.36**	.43**	.41**	.20**	.23**	.26**
	Growth	.49**	.43**	.41**	.40**	.45**	.39**	.31**	.34**

**p < .01 ①Relations with family ②Laid-back life and self-esteem ③Physical and mental health ④Independency and development ⑤Spirituality ⑥Interpersonal relations ⑦Appearance ⑧Sociocultural environment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2개 대도시와 2개 인근 중소도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8개 기관의 기관장에게 전화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 아동, 청소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섭외하였다. 연구 참여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각 기관의 담임교사에게 응답요령과 연구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과 함께 설문지를 가정으로 전달한 후 수거하도록 요청하였다. 면접조사가 아니므로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행복감을 평정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문장이 진술된 안내문이 첨부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1년 1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5주간이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916명의 응답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먼저 행복 조건은 18개의 하위 영역을 Alderfer(1972)의 E · R · G 이론에 따라 생존, 관계, 성장 조건으로 나누었다. 각 조건의 정의에 따라 생존 조건에는 경제력, 사회문화적 환경, 건강, 외모 요인을 포함시켰고, 관계 조건에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친척과의 관계, 부부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지위와 인정 하위 요인을, 그리고 성장 조건에는 성취와 자기 수용, 여가, 자기 발전, 자립성, 종교, 이타심, 긍정적 인생관, 몰입, 긍정적 정서 하위요인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머니 행복 척도'의 하위 영역에 따라 '가족관계', '삶의 여유와 자부심', '심신의 건강', '자립과 성장', '영성', '대인관계', '외모', '사회 · 문화 환경'의 8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해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어머니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생존, 관계, 성장 행복조건의 필요도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문제2를 위해,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분석하고자 필요도 수준을 상, 중, 하 각각 약 33%에 해당하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때, 필요한 경우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3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 생존, 관계, 성장 행복 조건의 고유한 상대적인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 행복감의 차이

어머니들의 행복감이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녀 변인에 따른 어머니 행복감 차이를 살펴볼 때,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자녀의 자녀 연령, 자녀수 변인과 함께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정 월평균소득 변인이 통제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

<Table 5> The differences of maternal happiness according to child's demographic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Wilk's Lamda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Child's age	Young children (n=203)	53.17 (10.43)	49.18 (7.05)	36.35 (7.64)	31.81 (5.71)	17.54 (3.22)	9.15 (3.79)	10.31 (3.23)	12.04 (2.82)	1.72*
	School-aged children (n=416)	52.18 (11.00)	49.13 (8.36)	36.40 (7.66)	31.90 (5.89)	17.57 (3.68)	9.07 (3.83)	10.25 (3.38)	11.83 (3.03)	
	Adolescents (n=243)	53.88 (10.82)	48.68 (8.05)	36.67 (7.89)	31.54 (6.33)	17.79 (3.57)	10.10 (3.67)	10.29 (3.39)	11.93 (2.75)	
	F	1.83	.08	1.22	.19	.63	3.72**	2.97	.41	
Number of children	1 (n=134)	52.22 (10.11)	48.09 (8.00)	36.51 (7.18)	30.28 (5.88)	17.35 (3.59)	8.96 (3.54)	10.58 (3.12)	11.99 (2.78)	2.71***
	2 (n=578)	53.25 (10.79)	49.47 (7.89)	36.76 (7.79)	32.10 (5.84)	17.79 (3.48)	9.39 (3/87)	10.46 (3.31)	12.03 (2.91)	
	Above 3 (n=150)	52.13 (10.82)	48.09 (8.63)	36.26 (7.82)	31.87 (6.36)	17.23 (3.54)	9.73 (3.73)	9.29 (3.49)	11.35 (2.90)	
	F	.51	1.18	.41	4.50*	.99	2.54	5.01**	1.27	

*p < .05. **p < .01. ***p < .001. ①Relations with family ②Laid-back life and self-esteem ③Physical and mental health ④Independency and development ⑤Spirituality ⑥Interpersonal relations ⑦Appearance ⑧Sociocultural environment.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연령(F = 2.68, p < .001), 학력(F = 3.74, p < .001), 직업유무(F = 8.14, p < .001) 및 가정의 월소득(F = 6.55,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월평균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시행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연령(F = 1.72, p < .05)과 자녀 수(F = 2.71, p < .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행복감 하위요소에 자녀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대인 관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F = 3.72, p < .05),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대인관계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어머니 행복감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수는 어머니의 자립과 성장(F = 4.50, p < .05) 및 외모(F = 5.01, p < .01) 관련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1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비해 자립과 성장의 행복감이 더욱 높았으며, 자녀를 3명 이상 둔 어머니들이 자녀를 1명 또는 2명 둔 어머니들에 비해 외모 관련 행복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행복 조건별 필요도 수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어머니들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생존, 관계, 성장 행복 조건별 필요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able 6에서 살펴보았다. 이때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자녀의 연령, 자녀수와 함께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의 영향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생존, 관계, 성장 행복 조건별 필요도 수준에 따른 어머니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Table 6> The differences of maternal happiness according to mothers'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Wilk's Lamda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Existence	Low (n=295)	48.75 (9.16)	45.45 (7.94)	33.94 (7.06)	29.39 (5.64)	16.21 (3.39)	8.76 (3.63)	9.34 (3.03)	11.18 (2.78)	8.24 ***
	Middle (n=277)	53.22 (10.62)	49.63 (7.19)	36.70 (7.37)	32.10 (5.46)	17.79 (3.32)	9.44 (3.73)	10.58 (3.20)	11.92 (2.80)	
	High (n=289)	56.54 (11.04)	52.00 (7.53)	38.82 (7.93)	33.89 (5.92)	18.89 (3.38)	9.93 (3.94)	10.27 (3.33)	12.62 (2.92)	
	F	36.13 ****	42.34 ***	21.60 ***	38.31 ***	38.57 ***	6.21 ***	8.59 ***	11.59 ***	
Relatedness	Low (n=269)	48.19 (9.41)	44.88 (8.16)	33.16 (7.14)	28.79 (5.64)	15.83 (3.47)	8.62 (3.59)	9.44 (3.09)	11.01 (2.72)	12.32 ***
	Middle (n=309)	52.89 (10.26)	48.99 (7.01)	36.41 (6.96)	31.78 (5.13)	17.72 (3.23)	9.18 (3.69)	10.26 (3.16)	12.01 (2.74)	
	High (n=282)	57.38 (10.83)	52.60 (7.00)	39.68 (7.74)	34.63 (5.75)	19.23 (3.12)	10.36 (3.91)	11.09 (3.58)	12.63 (3.03)	
	F	50.30 **	75.18 ***	48.71 ***	70.8 ***	68.0 ***	15.42 ***	13.34 ***	18.20 ***	
Growth	Low (n=278)	47.22 (8.88)	45.08 (7.85)	33.12 (7.06)	29.27 (5.76)	15.87 (3.40)	8.12 (3.48)	9.08 (2.96)	10.87 (2.71)	11.89 ***
	Middle (n=299)	53.13 (9.15)	49.80 (6.55)	36.87 (6.47)	32.04 (5.25)	17.89 (2.97)	9.11 (3.42)	10.56 (3.14)	11.99 (2.62)	
	High (n=282)	58.22 (11.37)	52.02 (8.12)	39.35 (8.31)	33.95 (6.01)	19.07 (3.51)	10.90 (3.96)	11.15 (3.53)	12.82 (3.03)	
	F	76.71 ***	48.41 ***	40.26 ***	41.70 ***	58.17 ***	40.00 ***	18.06 ***	23.74 ***	

***p < .001. ①Relations with family ②Laid-back life and self-esteem ③Physical and mental health ④Independency and development ⑤Spirituality ⑥Interpersonal relations ⑦Appearance ⑧Sociocultural environment

시행하였다.

Table 6에 의하면,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생존, 관계, 성장 행복 조건별 필요도 수준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생존 행복 조건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들은 다른 집단 어머니들에 비해 어머니 행복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더 높은 행복감을 나타내었다(F = 8.24, p < .001). 어머니 관계 행복 조건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들 또한 다른 집단 어머니들에 비해 어머니 행복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2.32, p < .001). 어머니 성장 행복 조건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지각한 어머니들 또한 어머니 행복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1.89, p < .001). 따라서 모든 행복 조건에 있어서 그 필요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어머니가 낮게 인식하는 어머니보다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행복 조건의 상대적 영향력

어머니의 생존, 관계, 성장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는 고유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녀의 연령, 자녀수 변인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생존, 관계, 성장의 행복 조건이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 전체 행복감은 성장 관련 행복의 조건이 가장 영향력(β = .57, p < .001)이 높았고, 생존(β = -.28, p < .001), 관계(β = .14, p < .05)순이었다. 즉, 어머니가 성장 요인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생존 요인의 필요성을 적게 느낄수록, 그리고 관계 요인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어머니 행복감은 높았다. 어머니 행복감 하위영역에 대한 어머니 생존, 관계, 성장 행복 조건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가족관계 행복감의 경우, 성장 조건(β = .75, p < .001)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생존 조건(β = -.28, p < .01)이었고, 관계 조건은 유의하지 않았다. 삶의 여유와 자부심의 행복감은 관계 조건(β = .33, p < .01), 성장 조건(β = .20, p < .01)순이었고, 생존 조건은 유의하지 않았다. 심신의 건강 관련 행복감 경우, 성장 조건(β = .44, p < .001), 생존 조건(β = -.22, p < .01), 관계 조건(β = .14, p < .05) 순이었다. 자립과 성장 행복감의 경우, 관계 조건(β = .39, p < .001), 성장 조건(β = .19, p < .01), 생존 조건(β = -.17, p < .05) 순이었다. 영성 행복감의 경우, 성장 조건(β = .37, p < .001), 관계 조건(β = .17, p < .05)순이었고, 생존 조건은 유의하지 않았다. 대인관계 행복감의 경우, 성장 조건(β = 1.05, p < .001), 생존 조건(β = -.60, p < .001), 관계 조건(β = -.20, p < .01) 순이었다. 외모 행복감의 경우, 성장 조건(β = .43, p < .001), 생존 조건(β = - .26, p < .001) 순이었고, 관계 조건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문화 행복감의 경우, 성장 조건(β = .45, p < .001), 생존 조건(β = -.20, p < .001)순이었고, 관계 조건은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는 생존, 관계, 성장 관련 행복 조건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삶의 여유와 자존감 및 자립과 성장 요인에서 관계적 조건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면, 전체 행복감 및 모든 행복감 요인에서 성장 조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relative effects of mothers' perceptions of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condition of happiness on maternal happiness

	Relations with family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dependency and development
	β	β	β	β
Mother's age	-.01	.01	-.04	-.07*
Mother's education	.04	-.02	.08	.06
Employment	-.08*	.01	-.11**	.01
Monthly income	.10**	.27**	.18**	.18**
Child's age	.06	-.00	.07	.03
Number of children	.02	.01	-.02	.08**
Existence	-.28**	-.12	-.22**	-.17*
Relatedness	-.04	.33**	.14*	.39***
Growth	.75***	.20**	.44***	.19**
	R square = .28 F = 37.52***	R square = .27 F = 35.43***	R square = .24 F = 30.55***	R square = .23 F = 27.91***

	Spiritu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ppearance	Sociocultural environment	Total score of maternal happiness
	β	β	β	β	β
Mother's age	-.01	.05	-.07*	-.02	-.03
Mother's education	.03	.07**	.08*	.09*	.04
Employment	-.07*	-.02	.07	-.01	-.04
Monthly income	.11**	.01	.29***	.18***	.20***
Child's age	.06	.09	.09*	.04	.06
Number of children	.01	.06	-.08***	-.04	.01
Existence	-.10	-.60***	-.26***	-.20***	-.28***
Relatedness	.17*	-.20**	.03	.00	.14*
Growth	.37***	1.05***	.43***	.45***	.57***
	R square = .23 F = 28.56***	R square = .28 F = 36.68***	R square = .22 F = 26.55***	R square = .16 F = 18.64***	R square = .30 F = 40.55***

*p < .05. **p < .01. ***p < .001.

Ⅳ. 논 의

본 연구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어머니의 행복 조건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8가지 행복의 하위 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친구나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측정하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더 행복하다고 대답하였다. 즉,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비해 친구나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등등 어머니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통제한 결과로서 자녀의 연령이 고유하게 어머니의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부모의 행복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물어 본 연구 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조능력은 부족한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생활 및 보다 확장된 친구관계와 관련된 부모의 역할의 증대로 인해(Collins, Madsen, Susman-Stillman, 2012) 자녀를 돌보는데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친구나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즉 가족관계 외의 대인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청소년의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사춘기 중기로 갈수록 그 거리감이 증가하고 갈등이 많아지는(Lauesen, Coy, & Collins, 1998; Steinberg & Silk, 2012) 자녀의 발달적 특징에 의해 자녀나 가족 외의 대인관계에서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 행복 증진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복감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행복감에 비해 낮다(Kim & Park, 2001)는 상반된 결과도 있고, 어머니의 행복감 자체는 아니지만,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Chung *et al.,* 2012)에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고려했을 때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수 또한 어머니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영성'과 '외모' 하위영역의 어머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두 명인 어머니는 자녀가 한 명인 어머니에 비해 '영성' 영역에 있어 더 행복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자녀가 한 명인 어머니는 자녀가 세 명인 어머니에 비해 외모 영역의 행복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를 두 명 양육하는 어머니에 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하는 측면에서는 행복감을 덜 느끼지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에 비해서 외모에 대한 행복감은 더욱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한 명인 어머니는 아직 내면적 만족감 보다 외적인 신체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통한 행복감을 많이 느끼지만, 자녀가 많아지면 외적 조건에 의한 행복감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8개 하위영역 중 '가족관계', '심신의 건강', '자립과 성장', '사회·문화 환경'에서, 자녀가 두 명인 어머니들의 평균이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영성'까지 포함하여 8개 하위영역 중 총 5개 하위영역에서 자녀를 두 명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행복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자녀수가 부모에게 주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는 현 상황에서(Lee, 2005; Lee, Jung, Park, & Shin, 2009), 두 명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생존, 관계, 성장의 행복 조건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의 어머니가 실제 행복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자녀 변인을 모두 고려한 결과인데, 행복에 대한 높은 가치관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현실에서도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과 기대감이 어머니의 행복감 지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의 학력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은 어머니의 행복 조건에 영향을(Chung *et al.,* 2012; Moon *et al.,* 2009; Park & Yoon, 2012) 끼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Diener *et al.,* 1999; Kim *et al.,* 2003; Lee *et al.,* 1991; Park & Yoon, 2012)고 밝혀졌지만,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은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나 기대에 비해 어머니의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많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삶의 기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긍정정서, 자존감 및 주관적 행복감은 높고, 부정정서, 우울, 불안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2007)와 일맥상통하며, 삶의 기대는 생활의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한다는 연구 결과(Suh & Oh, 2009)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삶에 대한 기대가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행복에 대한 가치관과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행복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행복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과 기대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에 생존, 관계, 성장의 행복 조건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전체 행복감과 8개 하위 영역 중 6개 영역에서 성장 조건에 대한 필요도가 어머니의 현재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가장 높으며, 생존 영역과 관계영역의 조건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과 실현에 대한 욕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욕구는 높을수록, 물질적·생리적 욕구는 낮을수록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한국인의 행복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행복 = 2.5×생존 + 2.5×관계 + 5×성장이라는 행복 공식(Kim & Han, 2006)과 비교해보면, 우선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관계나 생존 영역과 비교한 성장 영역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성장 영역은 '몰입'과 '긍정적 정서'가 추가되었으나 Kim과 Han의 연구(2006)의 성장 영역의 총 7개 요소인 '자기 수용감,'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여가,' '긍정적 인생관,' '사회봉사,' '종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연구에서 발견된 성장 영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생존 영역의 영향력은 부적인데, Kim과 Han(2006)은 20세부터 60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된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35세에서 44세 이하가 약 73%를 차지하는 유아-청소년 자녀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연구대상의 연령, 사회적 위치 및 역할에 따른 독특한 생애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추구 경향이 높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Hwang & Kim, 2009) 및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높았다는 결과(Ryan *et al.,* 1999; Sheldon & Kasser, 1995)와는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한국인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의 낮은 행복 수준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Dei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내적 성장 조건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 지향적 가치관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내적 성장의 지원과 생존 욕구의 적절한 조절 등에 대한 충분한 활동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자녀 변인과 어머니의 행복에 필요한 생존, 관계, 성장 조건에 대한 필요도 인식의 영향을 어머니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하고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자료가 부족한 부모 행복감에 관련된 자녀 변인에 관한 기초자료와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복감 척도와 행복 조건 설문지는 서로 독립적인 척도로 밝혀졌지만 문항 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평정 시 상호간섭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행복감을 평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연령대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에 그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여러 가지 자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나 관련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인 연구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복감과 그 영향 요인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Ahn, J. Y.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trend of early education and maternal parental beliefs, stress, and achievement pressu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1). 95-111.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Y : The Free Press.

Aristotale. (2000). *Nicomachean Ethics(R. Crisp, Trans.).*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gner, J. J.(2008). Parent-child relations : An introduction to parenting(8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Education Inc.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Chung, K. S., & Choi, E. S. (2012).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on the happin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5), 143-163.

Chung, K. S., Yoo, M. S., Park, S. H., & Choi, E. S. (2012).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cross the life-cycles of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4), 67-87.

Chung, Y. S. (1968). *Human and education.* Seoul : Gyoyookgwahaksa.

Collins, W. A., Madsen, S. D., Susman-Stillman, A. (2012). Parenting during middle childhood.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New York : Psychology Press.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1), 542-575.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Dei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2010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3.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143-156.

Furman W. & Lanthier, R. (2012). Parenting sibling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New York : Psychology Press.

Harre, R., & Lamb, R. (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 : The MIT Press.

Hwang, J. W., & Kim, K. H. (2009). The relationship bewteen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57-71.

Kammann, R., Farry, M., & Herbison., P. (1984). Analysis and measurement of happiness as a sens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2), 91-116.

Kim, D. R., & Kim, J. W. (2008).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that of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6), 311-333.

Kim, J. H. (2006).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stress and well-being : From the perspective of motivational states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453-484.

Kim, J.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expectancy and stress / well-being : An application of motivational states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2), 325-345.

Kim, M. S., & Han, Y. S. (2006).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The Korean Journal of Survey Research, 7*(2), 1-38.

Kim, M. S., Kim, H. W., Han, Y. S., & Lim, J. Y. (2003). Explorations on the happy life of Koreans on the bases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2*(2), 1-33.

Kim, U. C., & Park, Y. S. (2001). The stress, coping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 With specific focus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77-105.

Kwon (2008). *Positive psychology* : Scientific investigation in happiness. Seoul : Hakjisa.

Lauesen, B. Coy, K., & Collins, W.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s :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9*(3), 817-832.

Lee, I. (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 the implication of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4), 69-90.

Lee. Y. S., Lee, S. H., Yoo, K. H., & Jo, J. S. (1991). Work/family conflict, physical / psychological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homemakers in dual-earner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 9*(2), 209-223.

Luster, T., & Okagaki, L. (1996).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Mahwah, NJ : Lawrence Erlbaum.

Lyubomirsky, S., Sheldon, K. M.,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Maslow, A. H. (1954). *Motivations and Personality.* NY : Harper.

Moon, S. K., Lee, M. Y., & Park, S.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lbeing of parents.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137-153.

Park, H., & Yoon, G. (2012). The effects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33*(2), 243-261.

Park, Y. S., & Kim, U. C. (2009).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ults :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achievement, success of children,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Women's Psychologyy, 14*(3), 467-495.

Rothwell, C., & Cohen, P. (2003). Happiness is no laughing matter. extracted from http:// www.petecohen.com in 02/14/04

Ryan, R. M., Chirkov, V. D., Little, T. D., Sheldon, K. M., Timoshina, E., & Deci, E. L. (1999). The American Dream in Russia : Extrinsic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12), 1509-1524.

Sheldon, K. M., &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482-497.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31-543.

Steinberg, L., & Silk, J. S. (2012).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New York : Psychology Press.

Suh, K. H., & Oh, K. H. (2009). The moderat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expectancy on life stress and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3), 633-648.

Vaillant, G. E. (2002). *Aging well : Surpr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landmark Harvard study.* Boston : Little-Brown.

Veehoven,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The Netherland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White, L., Booth, A., & Edwards, J. (1986).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 why the negative corre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7*(2),31-147.

Woo, N. H., Kim, Y. S., Lee, E. J., & Kim, H. S. (2009). Examining mother's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concern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nurturing in the low birthrate era.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297-325.

2013년 4월 30일 투고, 2013년 7월 31일 수정
2013년 8월 13일 채택